

인력, 입지 등 간접적인 지원으로의 전환이 불가피 할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간접적인 지원도 특정성의 배제를 위해 산업 전체적인 차원의 지원방식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이는 그동안 한국경제가 정부주도형 발전을 계속 해온 습성의 탈피를 요구한다. 즉 기존의 정부주도형 보호무역주의 형에서 탈피하여 국경없는 전쟁에서 기업이 앞장서서 돌파구를 열어 나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반자적인 관계, 중앙정부보다 더욱 많은 기여를 할 기관이 바로 지방정부이다. 지방정부는 타국의 정보망에서 일정정도 자유롭다. 중앙정부가 갖지 못한 이러한 특성을 지방정부가 포착하고 지원사업을 진행한다면 음으로 양으로 많은 실적을 올릴 것이다.

결국 세계체제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가 간접적인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포장협회 등 각종 단체와 조합이 주축이 되어 포장업계 공동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업계 상호간 정보의 교환 및 기술교류는 물론 공동구매 및 수출 공동수주 등 공조체제의 구축에 노력하고 포장업계 공동의 협동단지 조성 및 교육연수,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한 공동이익 실현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포장업계의 대책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 정국현

| 월 | 시행전 평균 배출량(톤/일) | 시행후 배출량(톤/일) | 증가율(%) |
|-----|-----------------|--------------|--------|
| 1 월 | 53,301 | 34,109 | 36 |
| 2 월 | 53,546 | 33,709 | 37 |

(95.1.1~2.28)

| 시행전 배출량(톤) | 시행후 배출량(톤) | 증가량 | 증가율(%) |
|------------|------------|---------|--------|
| 475,366 | 664,228 | 188,862 | 40 |

1. 폐기물 관리동향

산업혁명이후 급속한 경제개발과 인구증가 등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관리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포장폐기물의 관리문제는 무역과의 연계논의가 많은 분야로 GATT/WTO 및 OECD 등에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관리 정책은 감량화, 재활용, 자원화, 소각 및 위생매립등 적정처리를 목표로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리패턴도 전환되고 있다. 즉 폐기단계에서의 적정처리 개념이 생산단계부터 유통, 소비, 폐기단계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친 종합적 관리개념으로 바뀌었으며, 폐기물관리 정책이 생산단계로 까지 확대됨에 따라 생산자에 대한 의무부여사항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 관리대상은 거의 포장폐기물이다.

국내 포장폐기물 발생수준은 전체 쓰레기의 20.7%이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 소비패턴의 변화와 고급화 등으로 계속 증가일로에 있다. 또한 합성수지 포장폐기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처리 문제가 심각하며 EPS사용량의 30%가 포장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2. 종량제 실시배경 및 그간의 성과

1)배경

종량제는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그 처리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해야 할 책임(원인자부담원칙)을 지운다는 기본원칙에서 출발한 것으로 기존의 쓰레기 수수료는 그 양과 관계없이 건물분 재산세 또는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은 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따라 필요한 만큼 규격봉투를 구입사용하여야 하므로 쓰레기발생이 줄게 되고 재활용품의 배출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시범실시 경우와 같이 쓰레기발생량이 40%정도 감소된다면 쓰레기는 연간 약 9,189천톤 줄어들게 된다. 이는 쓰레기처리비용이 연간 약 4,063억원 정도 절감되고, 매립지도 연간 약 818천m²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낳는 것이며, 절감되는 매립지 규모도 서울, 부산시민이 1년간 버리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규모이다.

2) 종량제 실시후 성과

종량제 시행취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증가추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자 체, 리필제품번호 등 쓰레기과다 발생제품 기피현상증가와 환경상품 또는 재활용 가능제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규격봉투사용율이 쓰레기적 체현상이 발생하던 시행초기에는 낮게 나타났으나 1월중순 이후 96%에서 99%정도의 높은 참여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주민여론조사결과도 응답자의 98%정도가 종량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극히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민이 종량제 실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버리는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고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그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다.

쓰레기배출량은 종량제 실시전보다 전국 평균 37%정도의 안정된 감량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특별시, 광역시는 26-37%, 도지역은 37 - 55%정도로 도농복합지역이 대도시 지역보다 비교적 감량율이 높게 나타났다.

쓰레기 감량요인으로서 재활용품 분리배출량 증가 뿐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주민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97.7%가 일상생활과정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자제(87.5%), 음식물쓰레기의 감량(86%), 쓰레기가 적게 발생하는 상품구입(64.4%), 상품구입시 포장재 제거(55.9%), 장바구니 사용하기

(35.7%) 등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은 평균 40%정도 증가하였다.

표에서도 알수 있듯이 그동안 종량제 실시결과를 분석할 때 주민들의 일상적인 쓰레기줄이기 노력으로 인한 감량효과는 충분히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현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종량제에 따른 쓰레기감량효과를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단계 뿐 아니라 생산, 유통단계의 감량시책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3. 포장폐기물관리시책 방향

포장폐기물에 대한 법률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 조 및 무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환경부령)에 의하여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등을 규제하고 있다.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은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에 대하여 포장공간비율을 10~35%이하, 포장횟수를 1~2차 이내로 하고 재질에 대한 규제는 종합제품과 완구, 인형류에 대해서는 발포폴리스틸렌계의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모든 상품포장재에 대한 PVC를 이용한 코팅 등의 사용은 금지한다. 그리고 단일재질의 포장재 사용을 촉진한다.

가전제품 완충재의 감량 및 포장재의 회수는 제품자체 용적이 30,000cm³이하인 제품은 발포합성수지 포장재외의 포장재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포

장재를 회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다.

화장품류 중 메이키업 제품류,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하는 액체, 분말 세제류에 대해서는 포장용기의 재사용토록 할 것이다. 즉 제조업자는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물만을 당해 제품 총 생산량의 5/100이상 생산토록 촉구하며 대형점 및 대규모 소매점에서는 내용물만의 판매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금년 상반기중 합성수지재 포장재 및 완충재의 감량화지침을 통상산업부와 협의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이는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의 합성수지 포장재와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포장용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현행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에 한정되어 있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규제대상의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4. 포장업계의 영향 및 대책

1) 국내포장업계의 영향

단기적으로 볼때 소비자 및 산업계의 포장재 감량화에 따른 전반적인 매출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종량제 실시 이후 제품에 대한 소비패턴의 전환으로 기인한 것인데 제품보호, 편리성, 미적선호라는 종래의 포장관점에서 폐기물 감량, 재사용, 재활용제품의 선호라는 방향으로 소비자의 관점이 선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필 포장제품 판매시장은 급신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생산자는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포장업계의 대책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활용이 불가능한 합성수지 코팅 및 라미네이팅 업계 등은 위축되고 대체포장재업계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때 현행의 제품포장에 대한 환경적합수준 상승에 따라 감소된 상태에서 소득 및 소비수준 증가로 포장수요는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결국 쓰레기증량제 실시이후 소비자의 포장재에 대한 의식의 전환은 일부 재활용 불가능한 제품의 위축과 포장재를 회수, 재활용하는 자원재활용산업의 활성화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대응대책

포장업계는 포장재질의 무해성, 폐기물발생의 감량화, 재사용-재활용등이 용이하도록 관련 기술개발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즉 LCA(Life Cycle Analysis)개념에 의한 제품포장 수요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로 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 또한 식품류 등의 포장시 폐기과정에서 환경부담이 크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PVC, 스티로폴 등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것이다. 음료, 주류용기에 대해 재사용 가능한 재질 사용을 권장하며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시 제품의 환경친화성 정도에 따른 차등부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미국에는 10여개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설치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포장산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포장산업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보다는 발달한 일본, 유럽 등 외국의 포장산업의 모방과 선진기술을 국내 적용과 재생산을 통해 생산기술은 이미 상당수준에 도달해 있다. 또한 환경친화성 포장 등 신제품 개발부문은 전문기술인력과 연구개발 투자의 절대부족으로 자체 개발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고 포장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부재는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영리목적에 의한 제품포장에서 탈피하여 기본적으로 환경문제를 우선 생각하는 사고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품포장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는 처리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노력도 아울러 요구되고 있다.

5. 결 어

폐기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상품포장은 이제 더이상 종래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리성이나 절약성에만 따를 수 없게 되었으며, 이제 여기에 더하여 환경보호측면이 강하게 고려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제적으로 환경과 무역에 관한 논쟁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상품의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고 환경에 적합한 포장재의 사용이 경쟁력 확보와

무역장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포장폐기물의 관리가 어느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기를 맞고 있다.

이에 생산자는 소비자의 구매충동을 위한 필요이상의 과대포장은 지양하고 포장재질에 있어서도 환경친화적인 재질의 사용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아울러 포장재를 회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 등을 이용한 회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환경적으로 적정하게 포장된 상품의 구매를 선호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재활용가능한 포장재는 따로 분리보관함으로써 생산자가 다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협조정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포장폐기물이 감량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포장폐기물의 감량화시책의 개발로 환경친화적 포장재의 개발에 적극 지원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